2-25. 양산 천성산 화엄늪에서 육화에 따른 곤충군집의 천이

도윤호*, 문태영

고신대학교 법/보전생물학연구실

경남 양산시 천성산(922.2 m)에서 화엄늪(798 m, 129°05 ' 57.4 "E, 35°24 ' 15.6 "N)을 중심으로 늪과 주변산지간의 곤충상 다양성의 차이를 조사하고, 산지성늪의 지표종을 찾기위해 노력하였다. 총 다양성은 87과 204속 233종으로 정리되었는데, 종다양도(H ')는 인근 산지가 216.66으로 높았으며(화엄늪: H ' =104.60) 두 지역 모두 Diplous depressus (Gebler) 사개천먼지벌레가 우점종(우점도, 산지 : DI=0.18, 화엄늪 : DI=0.24)으로 나타났다. 인근 산지에서는 참나무수림과 산지계곡의 특성을 나타내는 종들이 주로 관찰되었으며, 화엄늪에서는 친수성향이 강한 먼지벌레종들이 채집되었다. 그러나 화엄늪은 산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건조식생이 늪의 내부까지 침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화 혹은 건조화에 의해 우리딱정벌레, 멋쟁이딱정벌레, 사개천먼지벌레 등과 같은 산지성 지표보행성 갑충군이 늪의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내부까지 관찰되었다. 따라서 산지성 늪의 육화 현상에 따른 식물상, 곤충상, 토양성분의 변화에 대한 장기간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면 산지성 늪의 천이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양산 인근의 산지성 늪의 보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